

내일부터 SK·삼성 실적발표… ‘반도체 피크아웃’ 분수령

내일 SK하이닉스 실적발표 앞뒤
매출 279%, 영업이익 597% 급등 예상
삼성전자, 긍정적 잠정실적 발표
매출 171조, 영업이익 89조 ‘최대실적’
美 빅테크 AI 투자 지속여부 ‘관전’
중동발 지정학적 우려 해소도 필요

중동지역의 긴장 확대와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체들의 2분기(3~6월) 실적 전망치는 일관되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실적 전망치를 연일 올리며 ‘30만 전자, 200만 하이닉스’ 주가를 다시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오는 29일과 30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과연 어떤 수치를 내놓을까.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전닉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에 코스피의 운명도 달라질 것이란 게 증권가의 전망이다.

◆ **사상 최고 실적 쓰는 ‘삼전닉스’**

증권가와 반도체 업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분기 영업이익을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로 거둘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 관심은 영업이익이 전 분기 영업이익을 넘어서느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글로벌 빅테크들의 실적·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여부가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엔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53조6448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

오는 29일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는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8.6% 증가한 84조1693억원, 영업이익은 597.3% 뛴 64조2448억원으로 예상됐다.

앞서 삼성전자도 긍정적인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2분기 매출은 171조원, 영업이익은 89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한 상황이

다. 사업부문별 세부 실적은 오는 30일 공개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지금이 강력한 저점 매수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KB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글 AI 생태계의 최대 수혜주’라며 목표주가 60만 원을 유지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목표주가 420만 원을 유지했다.

◆ **美 빅테크 AI투자에 코스피 운명 달려**

시장에서는 반도체 주가와 코스피 반등의 걸림돌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지속 여부에서 찾는 분위기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AI발 수요 호조로 인한 매출 증가보다는 설비

투자 확대에 의한 현금흐름 감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업종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하이퍼 스케일러의 핵심 사업 실적 호조와 주가 반등, 토론투 비용 지수 상승과, 매크로 환경 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짚었다.

더불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우려도 해소돼야 한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가 완화되고, 유가가 낮아지면서, 미국채 금리가 하락 안정화를 보여야 한다”며 “고금리 환경에서 대규모 채권 발행은 이자 비용 부담과 신용 위험을 상승시키면서 설비투자 확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앞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올해 자본지출 전망치를 기존 1800억~1900억달러에서 1950억~2050억달러로 올려잡으면서 1950억~2050억달러로 올려잡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도 했다. 구글 클라우드의 수주잔고는 1분기 4620억달러에서 5140억달러로 확대됐으며, 영업이익률은 35.6%로 급증했다. 투자 확대의 근거도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알파벳의 호실적과 가이던스는 7월 반도체 조정론을 야기했던 AI 투자 피크아웃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며 “여전히 공급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중 AI 패권 경쟁도 변수로 꼽힌다.

애플은 중국산 메모리 도입을 요구한 반면 마이크론은 미국 반도체 산업 보호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고, 엔비디아는 중국 AI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개방형 AI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AI 규제를 둘러싼 미국 내부의 시각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4일(현지 시각)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경영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배스턴 재무장관 등을 직접 만나 중국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YMTC) 등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 외 지역에서 판매하는 애플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화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메모리 시장 경쟁 구도가 지금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 반도체의 ‘다크호스’로 거론되는 창신메모리(CXMT)의 증시 등판도 코스피에 부담이다. 글로벌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서다. 노무라의 도니 텅 애널리스트는 투자 노트에서 CXMT에 대해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116위안(약 2만5017원)을 제시했다. 공모가 대비 1239% 높은 수준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창신메모리, 상장 첫날 470% 폭등… 시총 1위로 ‘썩충’

상하이 증시서 49위안에 마감
시가총액 3조2800억위안 기록
공모 청약 경쟁률 치열… 흥행 기록

중국 최대 D램(DRAM)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상하이 증시 상장 첫날 단숨에 중국 본토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올랐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립 정책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확대 기대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창신메모리는 이날 상하이 증시에서 49.00위안에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3조 2800억 위안으로 1위에 올랐다. 중국공상은행(ICBC)은 2위로 밀려났다.

창신메모리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최대 666억위안을(14조4000억원)을 조달했다. 이는 올해 아시아 증시 최대 IPO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로고.

OO이자 중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중국 본토 증시 IPO 기준으로도 2010년 중국농업은행(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 상장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로 평가된다.

공모 흥행도 기록적이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 경쟁률은 212대 1을 기록했고, 청약 주문 규모는 7조700억위안(약 1532조원)에 달했다.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도 462.85대 1

에 달했다.

2016년 설립된 창신메모리는 중국 최대 D램 업체로 생산능력 기준 세계 4위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을 주요 경쟁사로 꼽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데이터센터용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CXMT 상장으로 중국 메모리 업계가 ‘기술 추격’에서 대규모 생산능력 확보로 역사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봤다.

산업 애널리스트 마지화는 CXMT의 부상으로 중국 D램 업체가 세계 선두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마 애널리스트는 CXMT가 이 자금으로 12인치 D램 웨이퍼 생산라인 업그레이드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연구개발(R&D)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술 업그레이드와 생산능력 확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이가 CXMT가 삼성전자 등 글로벌 D램 ‘톱3’에 도전하고 세계 시장을 재편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액 기준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38%)·SK하이닉스(29%)·마이크론(22%)이 1~3위였지만 CXMT의 점유율도 8%로 올라왔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CXMT 점유율은 3% 수준이었다.

다만 시장에서는 장기 전망을 두고 엇갈린 시각도 나온다. 리서치업체 모닝스타는 중국 내 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지만, 첨단 메모리 기술에서는 글로벌 선두 업체와의 격차가 여전히 커 AI 시장 점유율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미래에셋증권 2분기 퇴직연금 적립금 9.6조 ↑… 업계 최대규모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2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을 약 9조6000억원 늘리며 금융권 사업자 가운데 가장 큰 증가 규모를 기록했다. 전체 퇴직연금 시장 증가액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상반기 누적 적립금 증가 규모는 14조원에 달했다.

27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적립금 공시 기준 올해 2분기 전체 퇴직연금 시장 적립금은 45조1438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의 증가액은 9조5799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21.2%를 차지하며 42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상반기 누적 적립금 증가액은 약 14조원으로 연초 대비 36.5% 늘었다. 미래에셋증권은 1분기 약 4조원, 2분기 약 10조원의 적립금이 증가하며 두 분기 모두 금융권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같은 성장 배경으로 장기간 이어온 자산배분 전략을 꼽았다.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을 확대하고 국내외 주식과 채권, 혼합자산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는 설명이다.

실제 6월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전체 연금자산(퇴직연금·개인연금)은 80조 8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객 운용수익은 24조6071억원에 달했다.

회사 측은 투자 경험이 부족한 고객을 위해 로보어드바이저(RA)와 MP구독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금 자산관리센터를 통한 전문 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연금 고객가치제고 위원회를 신설해 투자 콘텐츠와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강화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NH투자증권, STO 제도 시행 앞두고 전담조직 신설

‘디지털자산 테스크포스’ 출범
사업모델 발굴, 추진전략 마련

NH투자증권이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자산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관련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22일 디지털자산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실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테스크포스(TFT)’를 출범시켰다.

TFT는 강민훈 디지털사업부 대표가 팀장을 맡고 상근 팀원 1명과 비상근 팀원

6명으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서비스 혁신과 자본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향후 디지털자산 시장 확대에 대비한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퀵윈(Quick-Win)’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제도 상 허용되지 않은 정형증권 기반 토큰증권 발행에 대해서도 기술검증(PoC)을 추진하며 향후 발행 역량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와 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TFT를 신설했다”며 “디지털자산은 향후 자본시장의 거재와 금융서비스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사 차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집해 사업 기회를 검토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맞춰 고객에게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STO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토큰증권 제도와 법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내년 2월 4일 시행되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령을 비롯해 발행·유통·결제 등 세부 제도가 담길 예정이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 증권사들의 토큰증권 사업 준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정윤 기자